

##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 봉사의 기초 — 제단에서 온 불

성경: 히 12:29, 단 7:9-10, 눅 12:49-50, 계 4:5, 출 3:2, 4, 6, 레 6:13

#### I.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다 — 히 12:29, 신 4:24, 9:3.

- A. 태워 버리는 분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이며, 태워 버리는 분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워 버리실 것이다 — 히 12:29.
- B.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그분 앞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전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 눅 12:49-50.
  - 1.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었다 — 요 12:24.
  - 2. 이 불은 영적인 생명의 충격력, 곧 주님께서 해방하신 신성한 생명에서 나오는 충격력이다.
- D.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이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있다 — 계 4:5.
- E.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부터 타오르는 불은 삼일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이였다 — 출 3:2, 4, 6, 마 22:31-32.
- F.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태우는 불이다 — 렘 23:29, 5:14, 20:9.
- G.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활력을 복돋는, 태워 버리는 불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이 이 땅에 오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실 때 불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타오른다 — 히 12:29, 눅 12:49.
- H.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 레 9:24.
  - 1.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이 불은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타올랐다 — 레 6:13.
  - 2. 신성한 불, 곧 타오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게 하신다 — 롬 12:11.

#### II. 하나님께 대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불에 근거해야 한다 — 레 9:24, 16:12-13, 6:13, 10:1-2.

- A.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이 불이 타오른 결과이어야 한다.
- B.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봉사가 이 불에 근거하기를 원하셨다. 향을 피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였지만, 향을 피우기 위해 사용된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했다 — 레 6:13.
- C.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에서 나와야 한다 — 출 3:2, 4, 6.

- D. 불은 활력의 근원이다. 우리의 봉사에 활력이 가득하려면, 우리의 봉사가 반드시 제단 위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 — 레 6:13.
1.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활력과 추진력과 충격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 불이 있다면, 우리의 봉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이다 — 눅 12:49.
  2. 신약의 봉사를 위한 활력과 원동력은 하늘에서 온 불에서 시작된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위에 내려온 불이 그들 안에서 활력과 원동력이 되었다 — 행 2:3.
  3. 이 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고, 파쇄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고자 하는 이들 위에 타오른다 — 레 9:24.
- E. 제단에서 온 불은 봉사의 참된 원동력이다 — 레 6:13.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관련해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불을 보내시어 우리 속에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다 — 눅 12:49, 롬 12:11.
  2.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를 불태울 것이다. 이러한 불태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활력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불태움의 결과로 봉사가 나올 것이다.
- F. 제단에 있는 불은 강력한 봉사를 산출한다.
1. 번제단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불은 그 영이다 — 갈 2:20, 행 2:3.
  2. 진정한 봉사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고 신성한 불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허락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봉사를 산출한다 — 레 6:13, 롬 12:11.
- G. 제단에서 온 불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다 — 고전 3:12.
1.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을 표현한다 — 고전 1:18, 빌 1:20.
  2. 불태움을 통해 산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에 속한다. 불태움을 통해 산출된 것이 아닌 일은 나무와 풀과 짚에 속한다 — 고전 3:12.
  3. 각 사람의 일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일이 불의 결과라면, 이 일은 불의 시험을 견딜 것이다 — 고전 3:13.

### III. 우리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단에서 온 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 레 10:1-2, 9:24, 6:13.

- A.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 이외의 모든 불은 다른 불이다 — 레 10:1.
- B.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는 그들이 제단에서 온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있었다.
- C. 다른 불은 자아의 불이다. 이 불은 혼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다 — 마 16:24-26, 고전 2:14.
1. 다른 불은 자아 생명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비록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일지라도, 자아 생명은 그 일들이 수행되는 방식을 지시하기를 원한다.
  3.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서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신의 제안을 고집하는 것이다.

- D.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생명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 레 10:1-2.
- E. 하나님은 불이 있는지 없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불의 근원과 본성에 주의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열성은 반드시 제단에서 와야 한다 — 레 6:13.

**IV.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하며,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 — 살전 5:19, 딤후 1:6-7, 롬 12:11.**

- A.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끄다’라는 말은 불을 함축한다.
  - 1.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불타고 계신다.
  - 2. 그 영께서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들을 불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끄지 말아야 한다 — 살전 5:19.
- B. 우리의 영 안에는 불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 딤후 1:6-7.
  - 1.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영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 요 3:6, 롬 8:16.
  - 2.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계있다 — 딤후 1:6-7.
    - a.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 b. 우리가 반드시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부채질해야 하는데, 이는 영적인 은사가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c.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롬 10:13.
- C. 우리가 그 영을 끄지 않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 롬 12:1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제단에서 온 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기초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웠다. 향을 피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상징한다.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것이어야 했다(레 16:12-13). 만약 누군가가 번제단에서 온 불로 향을 피우지 않으면 즉 그가 다른 불을 드리면, 그의 봉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죽음의 심판을 당했다(레 10:1-2). 이러한 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성막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봉사는 번제

단에서 불을 피움으로 시작되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레 9:24).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봉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출되었고, 홍해를 건넜고, 시나이(시내) 산 기슭에 성막을 세웠지만, 그들의 봉사의 기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그들의 봉사의 기반은 그 위에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이었다. 번제단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제단에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불이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다(출 3:12, 9:1).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없었다. 심지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의 입구에 번제단이 놓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는데, 그것은 아직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분을 섬길 수 없었다. 9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게 하셨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다. 단지 제단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번제물을 제단에 드려야 했다. 번제의 희생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고, 씻고, 제단에 둔 후에야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봉사가 이러한 불에 기반을 둔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 향을 피우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였지만,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취해 와야 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이 불이 타는 것의 결과여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제단에서 온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불을 사용해 향을 피웠다(레 10:1). 그 결과 그들의 봉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레 10:2). 이 사건은 우리의 봉사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불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다. 우리는 이 불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에너지도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봉사의 모든 항목은 번제단에서 타는 불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은 에너지의 근원이다. 물질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는 태움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봉사가 에너지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제단 위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하거나 땅에 속한 다른 불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룩한 불이다. 이 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타는 데서 나와야 한다. 이 불이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나온 불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은 실패하여 황폐하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겼다. 그 결과 그 백성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없었다. 황폐했던 기간 후에,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갈망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늦 제단, 즉 번제단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 두었다. 그는 또한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들과 번제물들을 바쳤다(대하 7:1).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봉사는 번제단에서 온 불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들

은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들은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 불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제단에서 타올랐다(레 6:13).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셨다(요 1:14, 2:21).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통해 섬겨야 했다. 그들은 그분께로 가야 했다. 주님도 제단, 곧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그분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셨다. 그러자 어느 날 불이 내려왔다. 이 불은 성령이었다(행 2:1-4). 주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 그분은 또한 그분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나머지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만족시키는 향기로 기쁘게 받으셨다(비교 고후 2:15).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이십 명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행 1:13-15)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결과 오순절날 그 영께서 불꽃 같은 혀들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것이 신약의 봉사의 시작이었다. 신약의 봉사는 내려와서 불타기 시작한 불과 함께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다.

신약의 봉사를 위한 에너지와 동력은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신약의 봉사를 위한 에너지와 동력은 하늘에서 온 불로 시작되었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내려온 불이 그들 속에서 에너지와 동력이 되었다. 오순절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일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늘이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서 왔다.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불은 오직 백이십 명에게만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번제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영의 불은 오직 번제단에만 내려온다. 그것은 장래에 임할 심판의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불이었다(눅 12:49). 이 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이들, 자신을 기꺼이 그분의 손안에 두어 죽임당하고 파쇄되게 하는 이들 위에서 타오른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불탐의 결과이다. 구약의 예표에서나 신약의 실재에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봉사는 항상 제단에 있는 불에서 나온다.

### 제단에서 나온 불이 봉사의 참된 동력임

하나님께서 사람의 봉사에 관해 하시는 유일한 일은 그분의 불을 보내시어 사람 속에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이다. 사람의 요소가 없이는 봉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요소만 있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의 봉사가 영적인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움직이셔야 하고 우리를 통해 섬기셔야 한다. 이것이 제단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 자신을 제단에 드리게 하고 계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권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가 기꺼이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면, 신성한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불탄 결과가 우리의 봉사, 곧 우리의 일일 것이다. 한 면으로 그러한 일은 우리가 그 안에 참여했으므로 우리의 일로 간주될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한 면으로 오순절날에 서서 복음을 전파한 이는 베드로였고(행 2:14-41), 또 한 면으로는 복음을 전파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베드로 안에서 타오르고, 베드로를 통해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얻은 것에 대한 예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봉사이다. 쇠가 불 속에서 정련되고 있을 때, 쇠가 불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불이 쇠 속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쇠가 빨갛게 되는 것은 불이 쇠 속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쇠를 두는 곳마다 불이 타오른다. 우리는 이것이 쇠막대기라고 할 수도 있고, 불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다. 불과 쇠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일을 설명하는 한 예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제단을 세우셨고, 자원하는 이들, 곧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기꺼이 나아와 다름받고 파쇄되도록 자신을 제단에 둘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갈망은 오직 주님의 필요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태울 것이다. 이러한 태움은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탄 결과가 우리의 봉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하신다.

### 불타를 통해 산출된 일은 금과 은과 보석들임

번제단을 체험하는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한다(고전 3:12). 금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리킨다.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원칙을 가리킨다. 보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킨다. 번제단을 체험하는 믿는 이들의 일은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표현한다.

번제단을 체험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존재에 따라 일한다. 그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한다(고전 3:12). 나무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을 가리킨다. 풀은 육체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벧전 1:24). 짚은 땅에서 자라 나온 것들, 곧 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사회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과 세속적인 실행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다. 보석들은 하늘에 속한 분위기를 가리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짚은 땅에 속한 상태를 가리킨다. 오직 불태움을 통해 산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에 속한 것이다. 불태움을 통해 산출되지 않은 일은 나무와 풀과 짚에 속한 것이다.

각 사람의 일이 불로 시험받을 날이 올 것이다(고전 3:13). 우리의 일이 불의 결과라면, 불의 시험을 견딜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불태우심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은 하나님의 불로 시험받는 것을 견딜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이

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전 3:14). 우리의 일이 타고난 사람에 따른 것이고 육체에 의한 것이며 흠에 속한 것이라면, 나무와 풀과 짚에 속한 것이다. 각 사람의 일이 불에 의해 나타날 때, 그러한 일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며, 우리는 손실을 입을 것이다(고전 12:15).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봉사, 29-35, 41-42쪽)*